

第7次 国内外 韓国 科学技術者

綜合學術大会 日程 등 確定

科總 7月13日부터 서울大서 開催키로

韓国科学技術団体 総聯合会는 제7차 国内外 韓国科学技術者 綜合学術大会를 오는 7월13일부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科總은 21일 무역회관 무역구락부에서 제7차 종합학술대회 1차운영위원회를 개최, 학술대회 일정을 비롯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学術委員長에 趙完圭 박사(서울대부총장)를, 監事에 李泰鉉씨(과총감사)와 韓准石씨(한국과학재단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国内外 韓国科学技術者 綜合学術大会 명칭 영문 표기를 “1980 KOREA SYMPOSIUM ON SCIENCE & TECHNOLOGY”와 “SYMPOSIUM ON SCIENCE & TECHNOLOGY, 1980, KOREA” 두가지案 중 在美側과 결충하여 결정 토록 했으며 分科別 学術発表회에 특색 있는 심포지움을 마련키로 했다.

在美 韓国科学技術者 3백여명과 国内科学技術者 3천여명이 참가할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12일간에 걸쳐 초청강연, 분과별 학술발표, 워크숍, 산업시찰, 종합평가등이 실시된다.

그런데 이 학술대회 개최식은 7월 14일 서울 중앙국립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木材工学会 定總서 会長에 趙在明씨선출

韓国木材工学会는 23일 林業試驗場에서 80년도 定期総会를 개최하고 新任会長에 趙在明(임업시험장 利用部長)씨를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에 安

在欧科聯 지역회원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在獨科協은 작년 한해동안 서울에서 열린 第6次国内外 韓国科学技術者 綜合学術大会에 25명의 회원이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 결친 学術講演会를 개최했으며 news letter인 “과협소식”을 3회에 걸쳐 부록과 함께 발간했다.

협회는 이밖에도 Frankfurt 소재 중소기업 및 현대건설, 한국전기협회, KIST등 한국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유대를 강화하기도 했다.

化學研 所長에

李泰鉉씨 任命

政府는 11일 化學研究所所장에 李泰鉉씨(57세)를 임명했다.

李泰鉉所장은 45년 東京帝国大学農学部 化學科를 졸업한 후 56년 美공군 대학을 수료, 60년까지 공군대령으로 복무했다. 60년 예편후 商工部 공업국장으로 官界에서 활동하다가 63년 韓—나이론 상무로 財界에 투신, 社長을 역임한바 있으며 71년 韓國科学院上院감사, 76년에 化學研究所 부소장으로 부임, 이번에 소장직에 오르게 된 것이다.

本聯会合 監事이기도 한 李所장은 부인 尹晶煥여사(51세)와의 사이에 2男2女를 두고 있다.

3 억 9 천만원 投入

科学院, 国家研究課題等

韓国科学院(원장 趙淳卓)은 학생교육과 병행해서 產業技術開發과 国家研究 課題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 올해안에 3억 9천 6백만원을 들여 70개의 자체선정 과제와 50개의受託 연구과제를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과학원이 마련한 연구활동 축진방안에 따르면 올해에 海外大学院들과의 共同研究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會員 176名으로 增加 在獨科協 母國協力事業전개

在獨科協(회장 李慶鍾)은 지난해 총 15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함으로써 회원수가 176명으로 늘어났다.

会長이 理事長 겸임 議決

科總, 初度理 定款改正審議委 두기로

韓国科学技術団体総联合会는 21일 무역회관 무역구락부에서 '80年度 初度 理事会를 개최하고 会長이 理事長을 겸임 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韓国統計学会, 大韓口腔生物学会, 大韓医用 生体工学会등 3개학회의 新規会員団体 加入을 承認했다.

이날 議案審議에 앞서 開寬植 회장은 人事를 통해 "지난 2년동안의 任期中에는 여러 理事님들의 협력으로 大過 없이 任務를 수행하여 科總의 이미지를 对外으로 부각시키면서 事務処의 機能을 整備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2년동안은 国家와 社會가 필요로 하는 民間團体로 聯合会를 發展시키는 중요한時期 이므로 任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하는 한편 8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개요를 비롯, 과학 기술인의 信条(案), 新憲法제정에 반영될 전의 사항, 회원단체 정책 및 법령개정건의 사항, 학회학술활동 조성사업지원, 과학기술상 수상후보자심사,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제7차 국내외 한국 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개최등에 따른 경과 보고가 있은 다음 案件審議에 들어갔다.

이날 理事会는 또 현행 定款에 이 사장 제도가 있고 이사중에서 互選한다는 규정 등 모호한 내용을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定款 개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新規会員団体 加入資格 審議는 "会員団体 加입자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는데 심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傘下会員도 医保에 加入 科總 1次로 250名에 惠括

韓国科学技術団体総联合会 傘下團体会員들도 医療保險의 혜택을 받게 됐다.

회원단체 사무직원들의 후생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의료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해 온 科總은 19일 1차로 医療保險加入을 신청해 온 대한 수의사회등 23개 회원단체의 피보험자 250명과 이에 따른 부양자 686명에 대한 보험카드를 과총이 소속된 의료보험조합 제6지구로부터 발급 받아 이들에게 보험증을 배부했다.

科總은 앞으로도 의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단체들의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会長에 金甲德씨 林学会 定總서 選出

韓国林学会는 22일 산림자원조사연구소에서 80년도 定期總会 및 學術研究 發表会를 개최하고 회장에 金甲德(서울농대교수)씨, 부회장에 박길홍(산림자원조사연소장), 김정석(임목육종연식생과장), 정현배(경희대 산업대학학장), 이광남(전남대임학과교수), 이응래(산림조합연합회이사)씨를 선출하는 한편 幹事에 이경재(서울농대임학과), 노의래(임목육종연), 박재우(산림자원조사연), 박대현(산림청), 이홍균(임업시험장)씨를 각각 선출하고理事一部를 개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임경빈 전임회장의 「소련의 林業」과 장일훈 산림청장의 「80년대 林政의 방향」이라는

特講이 있었으며 학술연구 발표회에서는 마상규(한국 산림 경영사업 기구)씨의 「춘하추기의 식재조림의 가능성」 등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会長에 尹定燮씨 선출 國土計劃学会 定總서

大韓國土計劃学会는 23일 國土開發研究院 회의실에서 第19回 定期總会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朴炳桂 회장 후임으로 尹定燮(서울공대건축공학과 교수)씨를 選出하고, 부회장에 姜炳基(한양공대 도시공학과 교수)씨와 樺泰峻(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씨를 選任했다.

이밖에도 朴炳桂 前任 회장과 孫鎮睦(서울대 산업대교수)씨를 顧問으로 推薦하는 한편 理事 일부를 새로 選任했다.

이날 총회는 또 79년도 事業実績 및 決算을 承認하고 80年度 事業計劃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韓·日共同 심포지움 개최

高分子学会, 11月에

韓国高分子学会(회장 沈貞燮)는 오는 11월 日本 京都大学에서 第2回 韓日共同 高分子 심포지움을 개최키로 했다.

이 韓·日共同 高分子 심포지움에는 한국측에서 演士 9명을 위시하여 學界·產業界회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高分子学会는 이밖에도 금년도 주요행사로 4월에 春季總会 및 學術發表会와 第2回 "플라스틱의 간단한 識別法" 講座(한국대에서 개최 예정)를 개최하고 8월에는 第2回 夏季 高分子세미나를, 10월에는 秋季總会 및 學術發表会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학회는 이밖에도 年 4~5회에 걸쳐 海外의 著名科学技術者를 招請,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技術開発에 稅制 惠択

成長관 民間研協서 언명

成佐慶과학기술처장관은 民間研究所 設立을 지원하고 技術開發을 촉진시키기 위해 技術開發促進法과 관련稅法를 전면개정, 보완하여 企業의 기술개발에 대해 稅制 金融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技術開發準備金 積立限度를 현행 소득금액의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30으로 확대하고 長期低利 技術開發回転基金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成長관은 14일 金經聯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第2回 民間研究所 設立 推進協議会 定期總會에서 祝辭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政府는 앞으로 技術導入의 문호를 개방하여 우리가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을 과감히 도입, 산업에本土化시키겠으며 도입이 어려운 기술은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민간연구소 설립 및 운영상 필요한 機資材等의 減稅減免을 추진하고 技術開發回転基金의 效用적 설치와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技術情報体制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현재의 명칭을 民間研究所 協會로 변경하고 현 會長團을 전원 유임시키는 한편 부회장에 李召東(한양화학사장), 金命錫(기아산업사장), 鄭燦周(선경합섬사장)씨 등을 새로選任했다.

全民濟회장 留任

技術用役協 定總서

韓國科學用役協會(회장 全民濟)는 22일 무역회관 22층에서 1980년도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全民濟회장을 비롯한 會長團을 전원 유임시키는 한편 79년 事業実績 및 決算을 承認하고

80年度 事業計劃으로 技術用役 振興施策研究, 技術用役 育成制度 改善에

관한 調査研究, 技術用役 報酬率의 現実化 및 制定, 对政府 建議, 技術用役 技術者의 処遇改善와 人件費 現実화, 등을 확정했다.

알

림

1980年度

第1回 科學技術人對話의 廣場開催 - 新憲法制定에 反映할 意見 -

1. 目的

- 가. 80年代 高度産業社會를 具現하는 基盤으로서의 科學技術을暢達하기為한 正策方向을 設定코자 함.
- 나. 持続的인 經濟成長을 為하여 要請되는 科學技術의 寄與度를 提高하고자 함.
- 다. 国民生活 科學化 運動의 拡散 및 實踐方案을 模索하고자 함.
- 라. 関聯 科學技術界의 相互理解와 協調基盤을 造成코자 함.
- 마. 新憲法 制定에 反映할 科學技術界의 総意를 紛合코자 함.

2. 日時・場所

- 가. 日時: 1980. 3. 29 (土) 07:30~09:00
- 나. 場所: 韓國貿易會館 貿易俱樂部 (22層)

3. 參加範囲

- 가. 招請
 - 1) 立法院 2) 行政府 3) 言論界 4) 教育界 5) 經濟界
 - 나. 參加: 約 100名 (聯合會任員, 會員團體長, 產業體, 関聯團體長)

4. 会順

- 가. 開會辭: 閔寬植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 會長)
- 나. 人事: 成佐慶 (科學技術處長官)
- 다. 主題發表・討論

進行 金基衡 (科學技術 政策研究委員長)

- 1) 主題: 新憲法制定에 反映될 問題 (科學技術部門)
- 2) 演士: 洪文和 (韓國科學著述人協會 會長)
- 3) 討論參加: 崔相堯 (西江大學校 理工大 教授)
朴益洙 (韓國科學史学会 會長)
趙慶哲 (慶熙大學校 文理大 教授)

- 라. 朝餐

5. 參加申請

- 가. 申請方法: 申請書에 依함 (別途)
- 나. 參加會費: 10,000원 (招請人士 除外)
- 다. 申請마감: 1980. 3. 22 (土) 17:00
- 라. 接受地: 서울特別市 江南区 駅三洞山 76-561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振興部 TEL. 56-4147~9)

第1回 科總會長旗 爭奪 科學技術人 바둑大會 開催案內

1. 主 催 :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2. 主 管 : 韓國棋院

3. 後 援 : 日曜新聞 · 現代經濟日報

4. 協 賛 : 東洋나이론 · 三千里產業

5. 日時 및 場所 :

가) 日時 : 1980年 4月 12~13日 (2日間)

나) 場所 : 韓國棋院會館 大會場 (502호실)

6. 參加範圍 :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全회원단체 (學會, 研究所, 協會等) 및 賛助會員團體, 科學技術處 (산하기관 포함)

7. 參加 팀 : 各團體別 1個팀 (단장 1명, 선수 3명 (主將포함), 후보 1명) 計 5名)

8. 申請場所 :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새마을事業部

(55) 4147~9 (57) 2328

9. 申請金 : 20,000원

10. 申請마감 : 1980년 3월 31일 (오후 5시)

11. 競技方法 : 총 토너먼트戰 (其他規定은 競技當日 發表함)

12. 施賞 : 우승 = 科總會長旗와 상패 및 부상 (5점)

준우승 = 상패 및 부상 (5점)

3位 = 상패 및 부상 (5점)

격려상 = 상패 및 부상 (5점)

13. 特典 : 우승팀에는 아마 4段까지 합당한 아마段을 認許하고 參加者全員에게 기념품을 증정함.

14. 棋譜게재 : 決勝戰棋譜 및 重要棋譜를 日曜新聞 · 現代經濟日報 및 月刊 바둑誌에 게재함.

盧正鳴翼 회장 留任 纖維工學會, 18次 定總서

韓國纖維工學會는 2월20일 科學技術會館에서 第18次定期總會로 열고 회장에 盧正鳴翼 교수(인하대공대), 부회장에 許承祐 교수(한양대공대), 朴成陽씨(한국소모방법화부회장)를 留任시키는 한편 새로 鄭允圭 교수(성남대공대)를 副會長으로 選出하였다. 이 날 總會에서는 79年度事業実績 및 決算을 承認하고 80年度 事業計劃 및 予算案을 審議 通過시켰으며 崔榮燁 교수(한양대공대)에게 學術賞을, 李起東社長(全經합섬(주))과 楊汝鉉社長(혜양섬유(주))에게 각각 技術賞을 수여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섬유제의 동향과 섬유학도의 자세(李衡復博士)”, “섬유제품의 고급화(金魯洙博士)에 관한 特別講演이 있었다.

太陽에너지 研究協定 UNESCO, CEAO와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은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AO)와 공동으로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太陽에너지 研究센터 創設協定을 체결하고 6개회원국의 에너지전략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극 참여키로 했다.

UNESCO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과학 분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케되는 이 太陽에너지 開發 및 研究센터 건립은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확정짓게 된다. 그런데 이 계획안에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太陽에너지 장치설계 및 제작, 그리고 여러가지 재생기능에너지의 응용가능성연구 전문요원 훈련, 에너지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배포, 태양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간 및 국가간 노력을 위한 한 협력 방안등을 다루게 된다.

이 센터는 「말리」와 「바마코」에 건립될 예정이다.

자랑스런 도민상, 受賞

金洪殷 忠北 道團위원

忠北 세마을技術奉仕團 전문위원이며 本誌 1월호에 “밝아오는 월악산 기슭”이라는 세마을 技術指導手記를 소개한 바 있는 忠北大林学科 金洪殷교수가 지난해 11월29일 忠北道제정 제11회 “자랑스런 도민상”을 수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새 도민상 정립에 혼저하게 기여한 사람에게 시상함으로써 忠淸人の 자랑스런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賞의 第 1회 수상자로 선발된 金洪殷교수는 15년동안 충북 제천군 한수면 송계리 2구 마을의 월악산 화전민촌을 봉사와 기술지도로 마을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

技能大会 日程 결정

國際技能 韓国委事

國際技能ول림픽大会 韓国委員會(회장 洪性澈)는 22일 世綜文化會館 대회의실에서 1980年度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79年度 事業実績 및 決算을 承認하는 한편 第10回 지방 기능경기

科 總

來 訪

- △ 2월 5일 : 鄭昌固(대한 수의학회장) 씨 : 인사차.
- △ 2월 6일 : 李泰鉉(화학연구소장) 씨 : 인사차.
- △ 2월 11일 : 陸鍾隆(한국낙농학회장) 씨 : 업무협의차.
- △ 2월 12일 : 趙慶哲(경희대교수) 씨 : 과학상수상자로 제출차
- △ 2월 13일 : 洪鍾徽(대한금속학회장) 씨 : 인사차.
- △ 2월 27일 : 李載昌(한국통계학회) 씨 : 인사차.
- △ 2월 28일 : 金海琳(파총고문) 씨 : 회관입주 인사차.
- △ 2월 28일 : 金基衡(파총고문) 씨 : 업무협의차.

대회 및 제15회 전국기능 경기대회 개최 등 80年度 事業計劃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6월 全南 光州에서 개최되는 第15回 全国技能競技大会를 성공리에 마치며 81년 6월 美國 佐治亞州 아틀란타에서 개최될 第26回 國際技能올림픽大会에서의 綜合優勝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는 또 前任 李洛善회장을 名譽會長으로 推戴하였으며 〈株〉 大農 朴龍學會長을 副會長으로, 三然油脂(株) 金在中社長을 理事로 각각 選任했다.

線虫類 防除 워크숍

韓國菌学会 慶熙大서

韓國菌学会(회장 金炳珪)는 1월25일 경희대학교 문리대 생물학과 실험실에서 “소나무를 해치는 선충류의 방제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서울대 농대 나용준 박사의 지도로 (보조자: 일본 쿠쿠바 대학 환경과학과 요네다 기미오) 소나무를 固死시키는 선충류를 겸출하는 방법이 다루어졌다.

編輯後記

零上の 포근한 날씨가 봄을 채촉하고 있다.

양지바른 언덕의 나무가지에는 봄기운이 완연하고 짜스한 훈풍은 남녘의 꽃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科學街도 오랜 冬眠에서 깨어난 듯 많은 학회들이 2月 들어 總會를 비롯한 學術發表會를 열어 生動하는面貌를 보여 주고 있다.

새 역사의 章을 이루는 80年代를 맞아 科學과 技術, 誌의 이미지를 刷新하기為한 一段階作業으로 表紙를 改善했다.

지난 12년동안 苦難과 遷徙히 이어온 伝統에 오늘의 時代思潮를導入하였다.

当初에는 新年号부터 새 表紙로 단장하려 했으나 專門家의 意見과 多角의 意見를 考慮して 2月號으로 設定되었다.

科學과 技術, 誌 2月號는 特輯으로 80年代 韓国科学技术을 展望해 봤다. 紙面 관계로 專門分野를 細分하지 못하고 部門別로 다루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또 이번号부터 愛讀者の 投稿를 가급적 많이 신기로 했다. 投稿내용을 參考하고 보다 많은 意見와 參與로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發展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

(鎬)